영화배우의 고민

(행9:19b~31)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화배우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영화배우 설경구 씨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분이 출연한 영화 중에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오아시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홍종두라는 역을 맡아서 열연을 하게 됩니다.
상대역 배우로는 문소리 씨가 한공주라는 이름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데, 중증 뇌성마비 장애우입니다.
그리고 설경구 씨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백수 청년입니다.
이 지능이 떨어지는 백수 청년, 어느 정도 지능이 떨어지냐 하면, 형이 사고를 냈는데 형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대단히 큰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기꺼이 형 대신에 감옥에 들어갈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형이 낸 사고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피해자는 없고 그 피해자의 여동생인 문소리 씨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 중증 뇌성마비 장애우인 문소리 씨에게 첫눈에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 지능이 떨어지는 백수 청년 홍 종두와 중증 뇌성마비 장애우인 한 공주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찍는 중에, 이 설경구 씨가 지인의 결혼식장에 참석했는데, 남의 결혼식장에 이 지능이 떨어지는 백수 청년인 홍 종두 캐릭터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의 주최 측의 입장에서 보면, 예의가 없어도 이렇게 예의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극중에 홍종두가 지능이 떨어지니 패션 감각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산 남방쪼가리 하나 걸치고 다니는 그런 청년인데, 그 옷차림을 하고 결혼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경구 씨가 뭐 기인이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화배우로서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홍종두라는 배역과 톱스타 자리에 오른 실제의 설경구 씨 사이에는 엄청난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에요.
실제 삶을, 가족들과 함께 살고 결혼식장에 멋지게 정장을 하고 가서 지인과 악수를 하고 축하를 하고 하는, 그러한 설 경구로 돌아가 갖고는, 촬영장으로 돌아왔을 때, 홍 종두의 캐릭터를 되살리기가 힘든 겁니다.
이 불연속성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화배우들의 이 가장 큰 고민인 이 불연속성은, 실제의 삶과 영화 속의 캐릭터 사이에 있는 불연속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를 찍을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을 열면 큰 하나의 제목이 있고 그 제목 밑에 chapter가 있고, chapter 밑에 소제목이 있고, 소제목 안에 들어가면 단락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 한 시나리오에는 chapter가 있는데, 그 chapter를 영화에서 씨퀀스(sequence)라 그래요.
크게 이야기별로 씨퀀스(sequence)를 몇 개로 나눕니다.
씨퀀스(sequence) 안에 들어가면, 책에서의 소제목과 마찬가지로 씬이 있습니다, scene, 장

면이 있습니다.
그 씬(scene)이 있고, 그 씬(scene) 속에 또 컷(cut)이 있습니다, cut.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식당에서 밥 먹어라 외치고 식당에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을 찍는다 그러면, 이게 scene이고, cut은 엄마가 아들을 부르는 장면 요게 cut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오는 장면 요게 cut이고, 이런 cut들이 모여서 scene이 되고, scene이 모여서 sequence가 되고, sequence가 모여서 한 scenario를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 scene에 1번 cut을 찍은 다음에, 곧바로 3번 scene에 2번 cut을 찍으면 좋은데, 3번 scene에 1번 cut을 찍고 나서, 3번 scene에 2번 cut을 찍는데 한 달 뒤에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scene과 3번 scene이 장소가 같으면, 3번 scene에 1번 cut을 찍은 다음에 4번 scene을 같이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번 scene을 해야 되는 배우로서는, 1번 cut과 2번 cut이 연결이 돼서 연기를 하면, 연속적으로 연기가 잘 될 텐데, 이게 한 달 뒤에 하게 되니까, 1번scene에서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판인데, 2번 scene을 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연극을 생각해 보시면, 연극은 한번 막이 오르면, 그냥 쭉- 나가면 됩니다.
연극이 끝날 때까지, 1번 막 2번 막, 몇 막으로 돼 있더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시간에.
그런데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불연속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여자배우 같은 경우는, 상대방 남자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배역을 맡았을 경우에, 그 남자 배우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는 시간에 자기 가족사진을 보여 주려고 그러면 안 본대요, 결혼반지도 빼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몰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리고 어떤 여자배우는 자기 진짜 남자친구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진짜 실제 삶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 연기속의 남자배우에게 애인으로 몰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참 대단한 몸부림이지요?
이 캐릭터와 자기가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불연속성을 극복해야 되니까.

신앙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문제는 배우들이 겪는 고민과 정반대 방향으로 신앙인은 고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겪느냐?
신앙이 참 신앙이 되려면, 실제 삶이 참 신앙인의 삶이 되려면 반드시 연속성이 제거 되어야 합니다.
영화배우들은 불연속성을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연속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불연속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면서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그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도 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다메섹에 왜 왔어요?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은, 바로 괴수, 이단 사이비의 괴수였던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바로 그 회당이, 복음 전파 자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단 사이비의 괴수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제의 사울은 어디로 가 버린 겁니까?
어제의 예수가 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어 버렸습니까?

이 불연속성이라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 하면, 빌립보서 같은데서, '그 동안 내게 좋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좋기 때문에, 그 동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들을 해로 여겨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뒤에 그 굉장히 좋았던 돈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내게 들어온 돈이, 내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니까.
배설물을 계속 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불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돈이 좋았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계속 돈이 좋아요, 돈 버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래 갖고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은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처님께 기원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연속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나타나는 불연속성이, 단순히 이 사울이 박해자에서 추종자로 바뀌는 회심의 사건 언저리에만 발견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심 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연속성은, 우리 일평생 동안에 매 sequence, 매 scene, 매 cut 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 년의 삶이 우리 평생 중에서 하나의 sequence라 하고, 그sequence 중에서 한 달의 삶이 scene이고, 한 달의 삶 중에서 매일 매일의 삶이 cut이에요.
모든 cut가, 모든 scene이, 모든 sequence가 다 불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들은 모든 cut에서 불연속성이 생길 때마다, 그 불연속성을 극복해서 연속성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을 사는데, 어제 살던 내가 그대로 오늘을 살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연속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보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어제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오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사업을 해 오던 내가 오늘 생긴 사업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사업올 해 오던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죽으니까, 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 관계, 모든 것에 대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우편에까지 마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 주셔서 성령님이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하고 천국을 느끼게 하면서, 그 곳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그러다가 다시 눈뜨고 문 열고 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장으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때는, 어제까지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끊어져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사업장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강을 누리다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업장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면서 사업을 해 나갑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어제까지 엄마로서 살던 내가, 오늘도 또 그 엄마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날마다 죽는다는 말대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어제까지 엄마로서의 삶을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지상의 삶은 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문 열고 나와 보니까 자식이 앞에 보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엄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매 scene, 매 cut, 매sequence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다 끊어지고,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게 부딪쳐 오는 사람, 만나지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연속적으로 매번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것에 대해 죽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죽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내 보내셔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 cut 마다 나는 끊어집니다.
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이어서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겠구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어제 하던 사업이 오늘도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는 사업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연속성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직장의 연속성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직장에서 당하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겪는 매일매일, 내 인생의 하루하루, 다~ 불연속적으로 끊어져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살고, 다시 그 다음 장면 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살고…
다~ 끊어지는 것이고, 모든 끊어진 cut를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스토리로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지상에서의 삶의 연속성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매 순간에 인생의 삶의 cut, cut가 다~ 불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어제까지는 동쪽으로 뛰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은 서쪽으로 뛰니까, 직원들이 헷갈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동쪽으로 뛰던 사업현장과 서쪽으로 뛰는 사업에 대한 일을 이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제는 투자하자 그래 놓고 오늘은 또 투자를 빼자 그럽니다.
왜 그럴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하나님 안에서 사업과 관계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내 보내셔서 다시 사업에 왔을 때, 오늘은 빼라 그러면 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서 보여 지는 이 불연속성,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어제는 원수였습니다.
이런 불연속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의 증거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나타나는, 확인되어야만 하는 불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불연속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연속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의 삶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연속적으로 가 붙어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제의 일에 대해서 붙어서 오늘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마음이 땅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그러는 한에서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붙어 있던 마음이 잠깐 나와서 툭 치고 빠지고, 툭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불연속성 안에서 내 삶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배우들의 고민, 불연속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고민, 연속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제의 가족이 오늘도 여전히 가족이고, 어제의 직장이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 연속성을 끊고,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살고 하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자에게서 확인되는 불연속성이,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확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